

불교여성지도자 7명·대만 불광산사

‘훌륭한 여성 불자’로 뽑혀



◇중엄 스님 ◇뚝뚝 초드론 스님 ◇묘법

UN이 지정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7명의 불교여성 지도자와 대만의 한 사람이 '훌륭한 여성 불자' 상을 수상했다고 태국 '방콕 포스트' (The Bangkok Post)가 6일 보도했다. 이 상은 세계 불교도우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와 세계불교대학, 마하추 알롱콘 불교대학이 함께 선정하고 시상했다. 수상자와 그들의 공적사

항은 다음과 같다. ▲중엄(Cheng Yen) 스님= 세계적인 불교구호단체인 대만 자제기금회의 창설자로 1991년 막사이사이 상을 수상했다. 자제기금회는 1966년부터 해외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룬진 카니사(Khuning Karitha Wichenchaoen) 스님= 20년 동안 폭력에 노출된 여성과 어린이들을

증엄 대만 불교구호단체 자제기금회 창설

묘법 한국에서 수계... 위빠사나 명상강의 주도

불광산사 종파 불문, 깨달음 추구 여성 문화 개방

위해 심터를 제공해왔다. 여성지위 향상연합의 공동 창립자로서 최근 방콕에 태국 최초의 비구니 불교대학 설립에 착수했다.

▲룬 매리 크린차이(Khun Mae Sri Kinchai)= 태국의 명상 지도자로, 태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명상 강의와 설법을 했다. 위빠사나 명상의 지도적인 센터가 된 태국청년불교연합의 선인교사이다.

▲광생(Guang Saeng) 스님= 유명한 사회사업가로서, 태국 사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뿐 아니라 학

인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 인도에서 비구니계를 받고 하버드 의대 정신과에서 근무하며 약물 재활치료, 가족 문제, 도박 중독증에서부터, 강간, 아동학대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카운셀링을 하고 있다.

▲고타미(Gotami) 스님= 불교가 서구 심리치료와 결합해서 사회적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a.com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5. 삼불능(三不能)이란

오랜 세월 '부처님은 과연 누구였는가'라는 화두를 참구한 수많은 불교도들은, 부처님은 수많은 생애 동안 윤회를 거듭하면서 불과(佛果)를 이루기 위해 보살도를 닦아왔다고 한다. 부처님은 지혜의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의 중심인 것이다. 때문에 불자들은 열 가지 명호로서 부처님의 거룩함을 함축하여 담아내고 있다. 즉 부처님은 '여래(如來:진여에서 오신 분), 응공(應供:마땅히 공양받으실 분), 정변지(正遍智:바르고 보편적인 지혜를 증득하신 분), 명행족(明行足: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 선서(善逝:생사의 굴레에서 잘 떠나신 분), 세간해(世間解:세간을 모두 아시는 분), 무상사(無上師:위없는 스승), 조어장부(調御丈夫:세간을 잘 이끄시는 장부), 천인사(天人師:신과 인간들의 교사), 세존(世尊:세간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열가지 호칭을 갖고 있다.

부처님의 세번째 불능은 '불능진 중생계(不能盡衆生界)' 모든 중생계를 다 제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부처님께서는 비록 일체중생을 다 제도하시고 하지만 모든 중생계가 다 제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삼불능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죽음을 정화하지 않는 중생, 선(善)을 추구하는 의지가 없는 중생은 교화하여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불능은 부처님 자신의 불능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는 사람들의 불가능이다. 부처님의 삼불능 의미를 가 잘 잘 보여주고 있는 예피소드는 <법화경> 방편품에도 실려 있다. 내용인 즉, <법화경>을 설하려는 부처님께 증상만(增上慢)으로 가득 찬 5천명의 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퇴석하려고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를 경전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5천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천명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비의 화신으로 중생을 깨우치

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만화영화로

印·美 합작사 설립, 유럽시장 등 진출 겨냥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경(자타카: Jataka)>이 인도에서 만화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다. 인도의 만화영화 제작업체인 파드말라야 스튜디오(Padmalaya Studio)는 지난 2월 미국의 정글북 필름 클럽(Film Club of Jungle Book)과 영화 제작을 위한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본생경>에 들어있는 500여개의 일화들 중 200개의 이야기들을 단편 만화로 꾸밀 예정인데, 편당 예상 제작비는 미화 약 15만 달러(우리 돈으로 약

1억 9000만원)로 앞으로 4년간 제작된다. 파드말라야는 만화 본생경의 초반부 몇 편을 이미 시험적으로 제작하여 합작사를 모색하기 위해 작년 5월 칸느 영화제에서 상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작되는 만화 본생경은 미국과 유럽의 만화영화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서구인들의 취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캐릭터 디자인, 로고 디자인, 더빙 등은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도 뽀네= 이지는 통신원



◇멕시코 선련사에서 법회를 보고 있는 삼우스님(오른쪽)과 도안스님.

지난 1967년 8월부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서 4곳의 선련사를 창건, 현지어 포교에 앞장서 온 자해불교회(회장 삼우스님)가 멕시코 최초의 한국 사찰 건립을 발원하는 등 본격적인 멕시코 포

멕시코 첫 한국사찰 발원

자해불교회, 추위구성... 미국인 등 15명 교육중

교에 나선다. 지난 83년부터 멕시코인 도안스님을 중심으로 멕시코 선련사 포교당을 마련, 멕시코 개척불교운동을 펼쳐온 자해불교회 회장 삼우스님은 지난 1월1일 처음으로 한인불교법회를 열고 이날 법회에서 멕시코시에 한인불자들을 위한 사찰건립을 만장일치로 결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삼우스님은 정경환 이사장, 김재현 고문(전 한인회장), 강덕수 간사 등 임원진을 구성해 멕시코 포교의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초 3년만에 귀국한 삼우스님은 "현재 미국인 1명을 포함한 15명의 멕시코인들이 법사 및 승

려 양성기관인 3년제 미륵상가대학을 이수하고 있다"며 "이들이 승가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멕시코 포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해불교회는 현지어 대상의 포교사 양성기관인 미륵상가대학에서 정진할 해외 포교장학생을 모집한다. 18~40 세 미만의 영어 기초실력이 있고 불교공부와 수행을 통해 미주 개척불교에 헌신할 수 있는 장학생 15명을 3년제 미륵상가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교육시킨다. 미륵상가대학 졸업후에는 현지 포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문의=018-513-9403, 사카고 선련사=(773)528-8685

명상맨 집중력 활성화...방향 감각 활동은 둔화

뉴버그 교수 연구

스님들이 명상(冥想, meditation)에 깊이 잠길 때면 뇌의 집중력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성화되는 반면, 방향감각과 관련된 부위의 활동은 멈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방사선 의학자인 앤드루 뉴버그(Andrew Newberg) 교수 팀이 티베트 스님들

이 명상할 때 뇌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평소 활동적이었던 뇌 부위가 명상시에는 움직임이 없어지는 대신 평소 조용했던 부위는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 방송이 2일 전했다.

뉴버그 교수는 "명상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흔히 자아에 대한 인식을 잃거나 공간 및 시간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다.

부처님 가르침 받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고 복을 나누어주는 초인적인 존재로서 불가능한 일이 없는 삼계의 도사(導師)이며 사생(四生)의 자부(慈父)로 표현된다. 그러나 불교의 오랜 전통과 사상을 확인시켜주는 옛 경론과 선어록에서는 부처님에게도 세 가지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한다. 먼저 <대승기신론>, <대지도론> 64, <호법론>, <전등록> 권4 등에서 설해지는 부처님의 세 가지 불능에 대해서 살펴보자. 부처님의 첫번째 불능은 '불능진중생(不能盡衆生)'으로 정업을 고칠 수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정업이 다하지 않았거나 정업을 고치지 않는 중생은 부처님께서 비록 무상의 지혜를 구족하고 계시지만 선악의 결과를 불러오는 정업(定業)은 고쳐주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무리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운 중생만으로서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하는 과실이 있기 때

문에 세존께서는 묵연히 말리시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계속해서 경전은 일불승(一佛乘)의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 지법(伎業)들은 다 털어버리고 정실(貞實)만을 남겨두었다고 적고 있다. 부처님께서 성도 작후 "육방에 탐착하는 세간의 습관과는 역행되는 해탈의 가르침을 어떻게 설할 수 있겠는가"는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부처님의 삼불능이 의미하는 바는 '세간의 습관'과 역행되는 해탈의 가르침을 설한 부처님의 고뇌이자 시련이었던 것이다.

끝으로 <전등록> 권4에 수록된 승약 원규 선사 설법에서는 부처님의 삼불능은 응신(應身)의 부처님이 겪는 문제일 뿐 법신(法身)의 분상에서는 "결정된 속업이란 항구적인 것이 아니며, 인연이 없다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며, 중생에게는 본래 증감이 없기 때문에" 삼불능은 본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삼불능은 불교가 갖는 본래적인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비유적 명제이다.

원경학회 회주

Book advertisement for 'Awakening the Buddha Within' by Lama Surya Das. Includes a small image of the book cover and text describing the book's content on Buddhist psychology and medit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The Secret of Living' (숙임래정비법 혁신판) by Lee Hwan. Features a large quote: "If you have this one book, you have no worries about your job." Includes details about the book's content, price, and where to purchase it.

Advertisement for 'Bulje' (불제) by Bulje Daewon. Promotes 'Bulje' as a 'cable' for enlightenment, featuring images of a Buddha statue and a traditional Korean templ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ulje Daewon.